

민주연구원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성공 추진을 위한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방향 제언”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성공 추진을 위한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방향 제언 - 글로벌 산업GX 이니셔티브 확보로 기술 패권시대 이후 당면할 녹색패권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EU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자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보호무역 규제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산업 녹색전환 추진을 우리 경제의 저성장 극복과 지속가능한 제조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 6월 발표를 앞둔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계획의 성공 추진을 위한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브리핑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성공 추진을 위한 산업부문 탄소중립 9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① 산업그린전환촉진법,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안, 녹색성장기본법 등 K-GX 관련 입법의 조속한 제·개정을 통해 K-GX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함.
- ② 올 상반기 발표할 ‘K-GX 전략’에 산업부문의 업종별 맞춤형 감축수단과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함으로써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담아야 함.
- ③ 탄소중립 선제적 사업재편을 적극 추진하고,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 유도과 다각적인 지원을 위한 세제·예산 등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는 등 사업재편 성공모델을 조기 창출해야 함.
- ④ 순환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나아가 K-GX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산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함.
- ⑤ 난감축업종의 전기화를 통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에너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녹색전환형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개편으로 녹색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⑥ 탄소감축 혁신 R&D “산업GX 플러스”로 전산업·전주기 탄소감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야 함.

- ⑦ 전환금융 확대, 국민성장펀드 지원,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등으로 GX 인프라를 확충해야 함.
- ⑧ 5극3특 중심의 지역특화 GX 거점화를 추진하고, 지역별 맞춤형 GX가 제조AX와 융합·확산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⑨ CBAM·CSDDD·ESG 등 공급망 전반의 탄소규제 선제대응으로 경제·통상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K-GX 성과를 바탕으로 녹색전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확보해야 함.

- 민주연구원 윤종석 수석연구위원은 “산업부문의 녹색전환은 다중전환과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산업 현실에 맞는 업종별 맞춤형 정책으로 정책신뢰를 두텁게 쌓고,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고, “우리 역시, 산업전환을 통해 글로벌 기후정책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 차원의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산업GX 이니셔티브 확보로 기술패권시대 이후 당면할 녹색패권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